

“시행착오 거쳐야 안목 생겨요”

신문박의 70년

중국문화재 수집가 김형석 씨

그윽한 역사의 향기는 어떻게 전해 지는가. 과거의 자취를 간직하려는 보이지 않는 매니아(mania)들에 의해 흔적이거나 보존된다. 후속이 파멸되고 말았을 역사의 파편들이 몇몇 수집가들에 의해 되살려져 오늘날에도 당시 문화의 편린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70여년간의 외국생활을 통해 5천여 점의 중국 골동품을 수집한 김형석(金亨石·84)은, 그는 바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해서 과거의 빛을 미래로 전달하는 ‘문화의 지킴이’이다. 일제시대 중국 국부군 장군 출신으로 독립군 제15지대장을 겸임한 독립유공자이기도 한 김형석은 평생 중국 골동품 수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웅대한 박물관 수준 못지 않은 소장품을 갖고 있다.

40년대 말부터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유럽 등 세계각지에서 수집한 중국의 각종 문화재를 몇년전부터 국

전문가들도 분야가 있어, 목 동기 토기 등 재료별, 시대별로 전공이 다르지. 일반적으로 아는 것만으론 안돼. 보기 아주 어려운 것이나 희귀한 것은 더욱 감정하기 힘들지. 여러명의 전문가를 따로 불러 감정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전부 진짜, 전부 가짜가 되고 마는 듯 지 못할 일도 일어나지.”

김형석은 뛰어난 감정가와 골동품 수집가는 엄청난 시행착오 뒤에 탄생된다고 말한다.

“처음 골동품을 수집하는 자는 화려하고 이쁜 거만 좋아해. 그러나 문화를 알기 시작하면 험하고 더러운 것을 찾게 되지. 큰 수집가가 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아무리 큰 부자라도 돈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이렇듯 수집가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잘못된 골동품을 팔고, 싸게 산 물건을 가치가 높아진 뒤 고가로 파는 방법으로 훌륭한 골동품을 하나 둘 늘려가지. 결국



김재경 기자

유물감정 감각 넘어선 사물본성 보는 직감 필요

내에 반입, 청나라 건륭제의 곤룡포(衮龍袍), 중국 국보급인 계혈석(鍬血石), 송나라때의 술잔, 7천여년전의 토기 등 과거 찬란했던 중국의 문화유산 5천여 점이 서울 도곡동 소재 김형석의 사무실에서 숨쉬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그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는 중국 도자기와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 문화재 등.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는 3백여점의 중국 도자기는 ‘우리나라 태극기 변천사’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중국 인도 티벳 태극 등지에서 수집한 2백여점의 불교문화재는 한(漢)대의 불상과 당·송대의 육불로 된 불상, 티벳의 요령과 불화, 향로 파고다 등 불교문화의 다양한 변화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물들이다.

김형석은 감정능력 또한 뛰어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현 중국정부로부터 ‘북경시문물감정자문센터(北京市文物鑑定諮詢服務中心)’ 감정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내에서는 ‘한국고미술협회’의 고문직도 맡고 있다. 그러나 골동품의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 김형석의 자론이다.

“골동품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

과거 미래로 잇는 ‘문화지킴이’ 70여년간 골동품 5천여점 수집 “여생을 민족혼 일깨우기에...”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다. 그런데 그 안목은 책과 경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지는 거야.”

김형석은 오래된 유물의 감정에는 눈으로 식별하는 방법 외에도 손의 촉감, 허끝의 미각 등 감각 외에도 오랜 훈련과 공부를 통한 직감(直感)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마음의 눈을 띄워 사물의 본성을 여실(如實)하게 꿰뚫을 수 있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혜안(慧眼)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란 설명이다.

“어느때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가와 함께 문화재를 감정할 적이 있는데 장갑을 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웃었지. 말레이시아에 있을때 미국대사가 1백만불짜리 명대의 보물을 보지 않고 만져서 알려주더군요. 그만큼 촉각이 골동감정에는 필수적이지. 하지만 진정한 대가(大家)는 감각을 넘어선 직감을

알려 후손들의 역사공부에 보탬이 될 과 동시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일깨워주고 싶다”는 김형석은 “남은 여생을 민족혼과 도덕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회운동에 바치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도 막내딸 김국현씨(36)에게 ‘장군님’으로 불리는 김형석은 법정에서 줄줄이 선 오늘날 장군들을 향해 짜릿짜릿한 목소리로 호통을 친다.

“흔히 ‘영웅이 시세(時勢)를 만드느냐, 시세가 영웅을 만드느냐’ 하는 말을 하지. 그러나 정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거의 없어. 대부분은 시세가 만든 영웅에 불과하지. 다만 나폴레옹은 진짜 영웅이었어. 수많은 고비를 헤쳐가며 시세를 좌지우지 했지. 오늘날은 가짜 영웅이 판치는 세상이야. 한마디로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지. 돈이 영웅을 만들고 위인을 만드지. 그 여파로 부모를 필요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 도덕과 인격은 땅에 떨어지고... 나라가 독립됐지만 겁쟁이만 남아있어. 총장도 대통령 전·노 장관을 포함한 장성들이 조금이라도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면 엄청난 뇌물을 모으진 않았을거야. 싸이문드러진 정치를 보면 가슴이 원통해. 결국은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나라와 개인은 둘이 아니야...”

도인이 왜 병마에 시달리니까

문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공부하는 해외교인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① 비쁜 세상에 언제 다리고고 앉아있느냐 하시는데 좌선삼매의 수행없이 본래 모습 찾을 수 있는지요.

② 현상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과를 지배한다면 중생의 삶은 꼭두각시 같아서 오도하기 전엔 자유의지란 끼어들 지리가 없는게 아닌지요.

③ 마음과 육신이 하나일진대 오도하면 인과에서 벗어나야 할텐데 어떤 도인은 왜 병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지요.

④ 의문이 생기면 마음자리에 들어 관하는 것이 바른 수행자세일 것인데 스님께서는 왜 질문하러 하시고 답을 하시는지요?

(한성·美 로스앤젤레스)

답 ① 늘 말씀드리지만 행주좌와, 24시간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일체 만물이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잠시도 쉬지않고 찰나할

그런데 이미 입력된 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비유로 하는 말이지만 입력된 위에 다시 새 것을 입력해야 하겠지요. 저 녹음테이프를 재생해서 쓰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행이란 뭐니까? 밤꿈 한 일도 찰나에 과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가 끼어들 지리가 없다고 하십니까? 차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도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지요.

③ 백장야호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불라인과라는 말 때문에 오백생이나 여우 몸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백장선사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던가요. 불매인과라 하셨지요? 인과법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고 인과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깨달음이란 어둡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신룡도 도가 아니라 하셨습니까.

마음공부하는 까닭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 본래 밝아있음을 알고자하는 것이지 신출한 능력을 얻자는게 아닙니다.

④ 부처님께서는 왜 광성등안 설법을 하였고 역대 조사님들은 또 무슨 까닭에 대중을

지 상 상 답

길을 묻는 이에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발음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극적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나 나누며 돌아가는데 어느 때는 참선이고 어느 때는 참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가끔 보게되는 일이지만 무슨 백일기도나 천일기도나 하는데 우리가 백일만 살고 천일만 살겠다는 게 아니지요. 또 지구가 백일만 돌고 천일만 돌니까?

쉬지 않고 돌아가니 수행에도 힘이 없고 참선도 힘이 없이 그대로 여여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참선이고 진짜 수행인 것이지요. 좌선삼매를 말씀하시는데 삼매로 말할 것 같으면 좌선삼매도 있을 것이고 삼매란 어떤 조건에 맞아야 삼매인게 아니라 삼매란 어떤 조건에 맞아도 삼매인게 삼매가 있습니다. 옛 선사들이 좌선삼매를 강조한 것은 또한 방편입니다.

② 인과법의 씨앗은 결코 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사님은 인과율이 기계처럼,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매심불가득이라는 말을 아시겠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또한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일 뿐인데 그러면 과거의 업은 다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과거의 업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몸뚱아리 잡고 있던 말합니다.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내 자동차 컴퓨터에 수억권의 업식이 하나도 남김없이 입력되어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과거의 노비문서를 잔뜩 읽어지고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제정하고 설법을 하겠다고 보십니까? 중생이면 누구나 다 부처될 심성을 지녔고 그런 자격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무명에 잠겨서 그저 탐진치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면 결국 삼이만 고해일 뿐이고 그 고해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려주는 이 법을 와서 보고 듣고 배워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그대로 여여하고 자재로우리라. 그렇게 평생 가르치신 것이지요.

선사들께서 대중을 가르치신 까닭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무든 방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이니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 가는 것을 보았기에 발앞을 볼 수 있게 등불을 들어 비추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대자대비요, 중생들로서는 그 은혜의 지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 은혜감은 바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의문이 생겼을 때 관하는 공부는 내가 평소의 늘 일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무엇이 참 의정인지도 모르고 관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제 나름대로 ‘아하, 이런거구나’ 하고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될게 아닙니까? 공부가 익은 분들은 그냥 한 두마디에 알고 몸짓만으로도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소화가 잘되게 해야 하겠지요.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은 꾸밈이요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도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 포교원장) 은갖 정성을 다하여 그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시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결핵(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니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갑상선고통병이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